

우물 속 개구리

사실 나는 난양공대를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직전에 다녀온 유럽여행의 여운이 짙게 남고,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든 가고 싶어서 신청한 것이 이 프로그램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후회는 없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출발하기 전부터 준비할 것이 많았다. 카이스트에 제출하는 여러 서류도 그렇고, 난양공대에 제출하는 서류와 싱가포르 입국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잊고 있었던 캐리어를 꺼내고 짐을 차곡차곡 쌓을 때 비로소 실감이 났다. 나는 지금까지 해외에서 장기간 머무른 적이 없었는데, 이제서야 설렘과 걱정이 몰려오면서 나는 싱송송송송한 마음으로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싱가포르는 생각보다 너무 더웠다. 아무리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 더라도 이정도까지 덥고 습할 줄 몰랐다. 캐리어에 무겁게 가디건이나 후드 등을 챙겨왔는데 결국 하나도 안 입고 돌아왔다. 학교 또한 공항과 반대편에, 나라의 서쪽 끝에 있었다. 굉장히 한적한 곳이었고, 카이스트와 나름 캠퍼스 분위기가 비슷해서 좋았다. 학교에는 나무가 많고, 여러 야생동물들도 많았다. 식당들도 작지만 꽤 많았고, 학생들은 운동을 많이 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카이스트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며칠이 지났다. 이후 교환학생 웰컴 설명회에서 다른 한국에 온 많은 학생들 중 한국인들을 몇 명 찾을 수 있었고, 이후 그들과 함께 놀러 다녔다.

음식은 생각보다 잘 맛있다. 중화권과 영미권의 특징이 둘 다 있는 독특한 나라인지라, 두 문화권의 다양한 음식들을 같이 팔았고, 이러한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훌륭한 나라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싱가포르의 여러 지역들을 같이 놀러가고, 맛집들을 찾아갔지만, 나라가 작고, 학교가 끝에 있어서 이동에도 불편함이 있었어서 이는 한달정도 하다 말게 되었다. 이후 말레이시아도 정말 여러 번 여행을 갔었다. 가고 싶었다기보다는 나름 새로운 환경으로 여행을 가고 싶었고, 제일 경제적인 것이 말레이시아였기 때문이다. 5번 정도 간 것 같다. 쿠알라룸푸르, 조호바루, 랑카위, 말라카 등등 다양한 곳들을 많이 갔다. 한번도 생각치 못한 여행지로 즉석으로 그냥 여행을 떠났고, 그런 여행들이 더 즐거운 감이 있었다. 이후 거기서 만든 한국인 친구와 함께 호주도 갔다. 시드니, 멜버른과 멋진 자연경관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숙소에서 자고, 많은 음식들을 먹는, 참 즐거운 경험이었다. 지금까지의 나는 새삼 우물 속 개구리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였다. 이렇게 큰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나만의 우물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가서 당연히 여행만 한 것은 아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다. 총 수학과 전공과목만 3개를 들었는데, 한국과는 다른 정서의 수업과 시험이 굉장히 신기했다. 세 과목 모두 한 40명정도의 학생들이 수강신청했는데, 정작 수업 시간에 출석하는 학생들은 10명도 안될 때가 많았다. 심지어 금요일 오전에 열린 수업에 나를 포함해서 3명 밖에 없었을 때도 있었다. 출석이 성적 기준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수업을 모두 녹화해서 학교 사이트에 올려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성적 기준도 중간/기말/퀴즈가 끝이었고, 과제는 아예 없었다. 덕분에 수업 시간에만 출석하고 이후 남은 시간에는 자유롭게 놀러다니면서 시간을 썼다. 거기서 유

독 인상적이었던 과목이 있었다. 카이스트에서는 전자과 대학원 전공을 밖에 안 열고, 수학과에서는 안 열리는 coding theory라는 과목이 있었다. 어떤 과목인지 궁금해서 들어보고 드랍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다. 지금까지 부끄럽지만 순수수학에만 관심을 가지고, 응용수학은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수학이 이렇게 활용점이 넓고 여러 진로길에 대해서 생각해본 계기였다. 심지어 NTU에서의 교수님은 이 분야의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셨는데, 그런 교수님한테 직접 배우는 기회가 감사할 뿐이었다. 종강한 이후 교수님께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친절하게 여러 교재를 추천해주시고, 더 들어야할 과목을 알려주시는 등 상담을 해주시고도 했다. 그 분야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느껴졌고, 나도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본 것도 기억이 난다.

시험기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곤 했다. 도서관과 공부시설들이 잘되어 있어서 공부할 맛이 났고,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시험 역시 개념에 충실하고 재미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대학이라는 생각이 많이 났다. 혹시라도 교환학생을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수기를 읽는 사람이 있다면, 난양공대도 정말 좋은 선택지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나는 원래 내향적이고, 집에 많이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지라 꽤 많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까지 많은 경험을 하고 이곳저곳 갈지 몰랐다. 여행도 가고, 실수도 해보고, 배우고 싶었던 테니스도 배우고,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는 등 많은 경험을 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같이 이런 경험들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여러모로 내가 우물 속 개구리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 우물에서 벗어나고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많이 생각한 교환학생 기간이었다.

